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4월의 읽을 만한 책> 선정 · 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윤양중)는 <4월의 읽을 만한 책> 10종을 선정 · 발표했다.

선정된 책은 ▲《별치》(김주영, 문이당)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유인선, 이산) ▲《철학 속으로 들어가기》(장 폴 주아리, 차진희, 민음사)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청년시절》(이정식 외, 동아일보사) ▲《금융의 세계화》(프랑수아 세네, 서익진, 한울) ▲《미국식 사회 모델》(쥐스탱 바이스, 김종명, 동문선) ▲《인간 복제 무엇이 문제인가》(제임스 왓슨 외, 그레고리 펜스, 류지한 외, 울력) ▲《이야기가 있는 미술관》(김승현, 컬처클럽) ▲《유혹하는 글쓰기》(스티븐 킹, 김진준, 김영사) ▲《불행한 사내에게 찾아온 행운》(슈테판 슬루페츠키, 조원규, 문학동네) 등이다. | 669-0773 | www.kpec.or.kr

출협, 어린이도서상 · 과학기술도서상 공모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이정일)는 제23회 한국어린이도서상과 제20회 한국과학기술도서상의 시상요강을 발표했다. 2001. 3. 1~2002. 2. 28 사이에 국내에서 간행된 어린이도서와 과학기술도서를 대상으로 각 부문에서 1명씩 선정해 문화관광부장관상과 상금을 준다. 어린이도서상은 저작 · 일러스트

레이션 · 기획/편집, 과학기술도서상은 저술 · 번역 · 출판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신청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후보도서 1부와 함께 4월 10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 735-5651 | www.kpa21.or.kr

한국출판인회의, 제7기 출판편집자 과정 모집

한국출판인회의(대표 김언호)는 대학생 및 일반인(취업희망자), 출판사 신입직원, 출판사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출판편집자 양성과정을 모집한다. 강좌는 5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매주 화 ·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리고, 5월 10일까지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우편 · 이메일 · 팩스로 접수해야 한다.

| 3444-0623 | 팩스 3446-6909 | www.kopus.org

한국중대형서점협의회 창립

한국중대형서점협의회(공동대표 김주팔)가 지난 3월 20일 창립됐다. 전국 중대형서점 80여개사가 모여 도서정가제 확립을 통해 도서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서점문화 개선, 편리한 독자서비스 개발 등 독서문화 진작과 지식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협

의회를 창립했다. | 016-292-1052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문화학교 강좌 개설

한국도서관협회(회장 신기남)는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신현택)과 공동으로 '차녀독서지도와 문화교양강좌'를 주제로 2002년도 제1기 도서관문화학교를 연다. 강좌는 4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매주 화 · 수 · 목요일 오전 10시에 국립중앙도서관 강당에서 열린다. 수강은 누구나 할 수 있고, 3월 25일부터 선착순으로 200명을 모집하며 수강료는 교재대금 포함 3만원이다. 신청은 은행계좌 입금이 우선이고, 전화 · 방문 접수할 수 있다. 088-25-0021-701(국민은행, 예금주 한국도서관협회).

| 535-4868 | www.korla.or.kr

문화관광부,

《세계 출판산업 지표조사 연구》 펴내

문화관광부(장관 남궁진)는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윤청광)에 의뢰해 세계 출판산업현황에 대해 연구하고 그 결과를 펴냈다. 이번 연구는 세계 출판 패러다임의 변화과정에서 우리 출판산업의 위치를 파악해, 우리 출판산업의 발전방안과 정책적 진흥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세계 주요국의 출판산업 지표조사' '세계 출판산업의 구조와 현황' '세계 각국의 출판법제와 출판정책' '한국 출판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간발행 종수는 영국이 9만여종으로 1위고, 문고본 발행은 프랑스가 1만2천여종으로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주문형 인쇄출판(POD) 부문에서 콘텐츠를 4만종이나 확보하고 있고, 독일의 인터넷서점은 2,149개에 이른다.

| 3704-9114 | www.mct.go.kr

프레게

안토니 케니 지음/최원배 옮김/320면/13,000원

이 책은 현대 분석철학의 창시자인 프레게에 관한 소개서로 지은이는 이 책에서 개설서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들, 즉 쉽고 명쾌하면서도 주관에 치우치지 않는 설명을 제시한다. 또한 프레게의 표현을 빌어 프레게 철학을 설명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프레게 원전을 읽어보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경제발전과 경제윤리

황희서 지음/256면/9,000원

이 책은 창조성과 질서는 경제발전을 주관하는 정신적 실체들이며, 경제윤리의 범주 안에 있다는 전제 아래 물질적 풍요로 인한 사회의 타락과 인간성의 상실을 회복하는 대안으로서 경제윤리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제윤리는 경제발전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지침임을 강조하고 있다.

130-820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 924-6161 편집 924-6165 팩스 922-4933

E-mail : phil6161@chollian.net

http://www.seokwangsa.co.kr

윤리학에 대한 3가지 도전

제임스 P. 스타바 지음/배석원 옮김/240면/8,000원

이 책은 전통윤리학이 환경주의, 여성주의, 문화 다원주의에 의해 제기된 3가지의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야 함을 주장, 도덕적 상대주의를 배격하며 전통윤리학의 여러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 책은 윤리학과 도덕적 문제에 관한 입문과정의 매력있는 교재로 독자들에게 새로운 안목을 제시해줄 것이다.